

[11~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1)

<대화 1>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 그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바'처럼 어간이 '돌-'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벗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고'처럼 어간이 '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ㅅ'이 'ㅈ'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바'와 '저서'는 '빙'과 'ㅅ'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바 >도와', '더바 >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ㅈ' 앞에서는 반모음 'ㅁ' / ㅍ [w]로 바뀌었고, '도ᄃ 시니 >도오시니', '셔ᄃ >셔울'에서와 같이 'ㅅ' 또는 'ㅈ'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ㅁ' 또는 'ㅍ'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ㅅ'은 16세기 중엽에 '아ᄃ >아으', '저서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 자료를 보니 '빙', 'ㅅ'이 사라지면서 '도바'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바'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짓고'와 현대 국어의 '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을) 굽다	굽게	고바	고본	굽게	고와	고은
②	(신을) 굿다	굿게	그어	그슨	굿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눅다	눅게	누버	누본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본	잡게	자바	자본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

- < 보 기 >
- ㉠ 맑+{네 → [망네]
 - ㉡ 낮+{일 → [난닐]
 - ㉢ 꽃+{말 → [꼐말]
 - ㉣ 굽+{고 → [글꼬]

- ① ㉠ : '값+{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 '입+{니→[입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 '물+{약 → [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 '잃+{지 → [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1)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1-12번(2016년 6월 시행)

2)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3번(2016년 6월 시행)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

— < 보 기 > —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1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4)

— < 보 기 >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3)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4번(2016년 6월 시행)
4)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15번(2016년 6월 시행)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⁵⁾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11.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학 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옷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5)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1-12번(2016년 9월 시행)

12.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었군.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었군.
 ③ ㉢은 '동수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었군.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었군.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 되었군.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13.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⁶⁾

< 보기 >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주말에 바람은 불췌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6)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3번(2016년 9월 시행)

14.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⁷⁾

< 보기 >

㉠ 영희 어머니께서는 “네 동생은 착해.”라고 말씀하셨다.
 ㉡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고,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풀어 쓴 간접 인용이다. 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대명사, 지시표현,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직접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간접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 사무실에 (㉡) 말했습니다.
↓	
직접인용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	
간접인용	언니는 어제 (㉢)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 나에게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① | 오늘 | 있으라고 | 자기의 | 남기라고 |
| ② | 어제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③ | 오늘 | 있으라고 | 나의 | 남겨라고 |
| ④ | 오늘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⑤ | 어제 | 계시라고 | 나의 | 남기라고 |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⁸⁾

< 보기 >

(가) 하늘 버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왕이 부터를 請흐스보소서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를 아라보리로소노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를 위흐 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물 미트 金물에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② (나)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 -'이 쓰였다.
 ③ (다) : 관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④ (라)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⑤ (마) :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7)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4번(2016년 9월 시행)
 8)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5번(2016년 9월 시행)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9)

< 보기 >

학 생: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②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힘든 만큼 기쁨이 큰 법이다.
③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	도로 폭이 넓어서 좋다.
④	내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하다.
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10)

< 보기 >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중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중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 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중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중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중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뭇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운]’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얇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옹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9)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1번(2016년 11월 시행)
 10)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2번(2016년 11월 시행)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11)

< 보기 >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u>몹스물</u> <u>여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u>몹스미</u> <u>여리</u>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리어</u>

㉢

[중세 국어] 번개 <u>구르물</u>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홀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튼</u> <u>몹스미라</u>
[현대 국어] 산심은 <u>홀어진</u>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_____ (가) _____ .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2)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히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11)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3번(2016년 11월 시행)
 12)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4-15번(2016년 11월 시행)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놓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꿰었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꿰었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납졌다.
- ③ ㉠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졌다.
- ④ ㉠ : 바위 뒤에 동생을 숨졌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졌다.
- ⑤ ㉠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정 답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2016년 6월 시행)

11.② 12.① 13.⑤ 14.③ 15.①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2016년 9월 시행)

11.② 12.② 13.③ 14.① 15.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6년 11월 시행)

11.① 12.⑤ 13.③ 14.③ 15.④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